

우울한 사회 우울증 주부

96.
8.9

<2> 원인

정남구 기자

대학을 졸업하고 일류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다 3년전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둔 김아무개(31·여)씨는 지난해 아들이 두들을 넘긴 뒤부터 재취업을 하려 했으나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김씨는 고민끝에 학습지 외판사원으로 나섰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3개월만에 그만두면서 우울증세를 보였다. 김씨는 올해 초 두번째 아이를 임신한 뒤 우울증이 더욱 심해져 가출까지 한 끝에 결국 친정 어머니의 손

에 이끌려 병원을 찾았다.

여성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고학력 여성들의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갱년기 전후의 여성들과 사회적 결손계층의 여성들이 주로 호소하던 우울증이 최근엔 고학력 30대 주부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 이나미씨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자신의 능력과 사회조건 사이의 괴리속에서 좌절감에 빠지기 쉽다”며 “이들의 좌절감이 임신과 출산직후 등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

재취업 좌절 정체성 위기감

고학력층 심해...가사노동도 인정못받아

기에 우울증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여성고용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92년 현재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고학력 여성들의 평균 취업률은 33.4%에 불과해 30살 미만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 57.4%보다 14%나 낮다. 게다가 이 수치는 지난 86년보다 오히려 2.5%가 줄어든 것이어서 고학력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 맞벌이가 점차 보편

화되면서 일터와 가정에서 이중 부담에 시달리는 맞벌이 여성들의 우울증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연희신경정신과 김병후 원장은 “맞벌이 주부들은 아직도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떠맡는데다 직장에서의 차별과 상대적인 저임금 때문에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체성 위기에 자주 직면한다”면서 “이들은 우울증세를 보여도 오히려 ‘무능하다’거나 ‘마음이 왜 그리 약하느냐’는 식으로 비난받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